

현묘의 사주명리 종급

제 5 강

천간들의 관계

T존의 활용 예시

사주 예시. 대한민국 최고의 일타강사

| 시주 | 일주 | 월주 | 연주 |
|----|----|----|----|
| | ** | * | * |
| 편인 | 본원 | 편관 | 편관 |
| 甲 | 丙 | 壬 | 壬 |
| 午 | 戌 | 子 | 戌 |
| 겁재 | 식신 | 정관 | 식신 |

1. 시간의 편인
2. 월간의 편관
3. 일지의 식신

해석의 방법

총론 : 식신의 환경에서 편관과 편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다.

삶의 터전 <식신>

자신의 현실적인 힘인 일지의 식신을 직업으로 사용하여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

도구 1 <편관>

많은 사람 앞(큰무대)에 서서 자신을 거침없이 드러냄.

서울대, EBS, 이투스, 현재 박사과정 - 철저하게 관성의 울타리에서 성장함.

“일목요연한 필기와 깔끔한 교재 디자인” 나무위키, - 체계와 조직화 관성의 힘.

스토커

도구2 <편인>

“공부자극 쓴소리, 동기부여”

인성 - 교사가 가져야할 최고의 십신, 스타강사이지만 학생의 마음을 다독여 줌

대운? 고급반에서 만나요~

기운의 본질

기운이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것

하나의 기운이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

음양의 수준에서는 쉽게 파악할 수 있음.

음은 양을 지향하고, 양은 음을 지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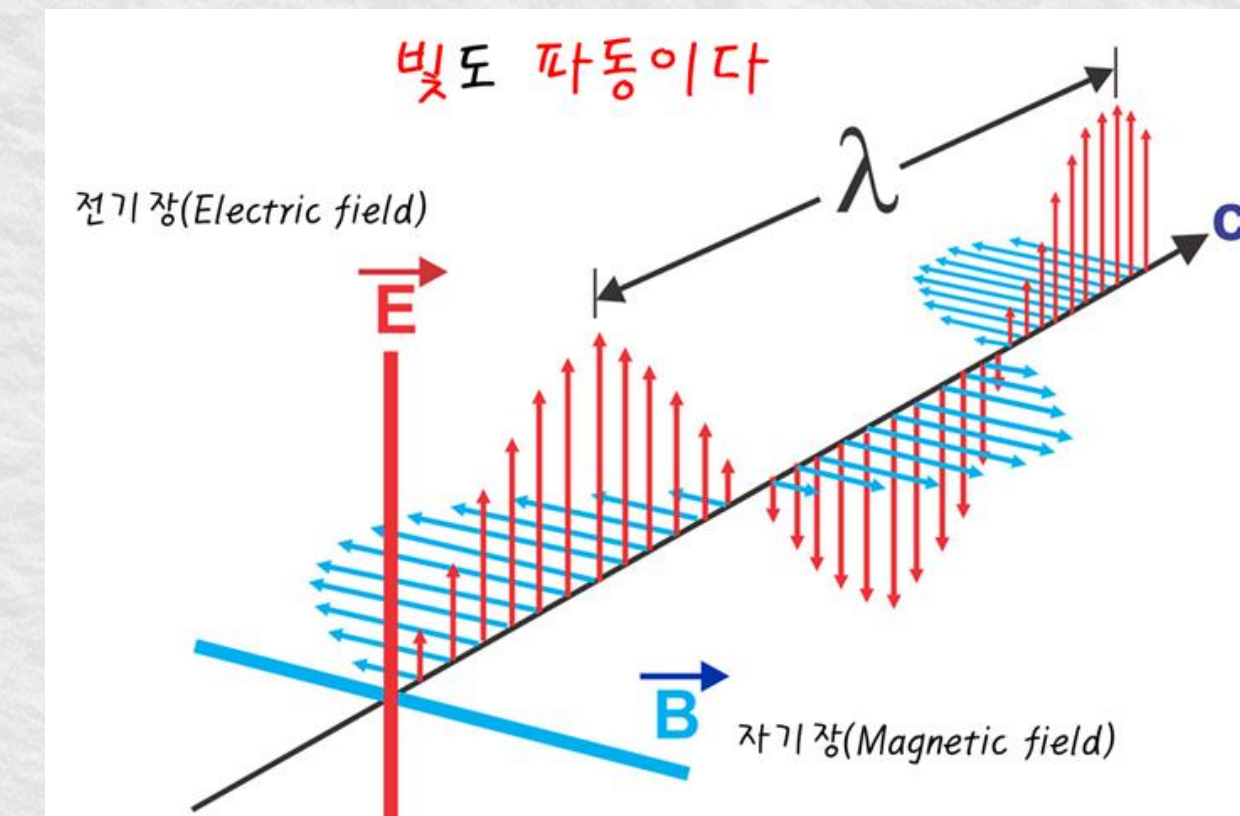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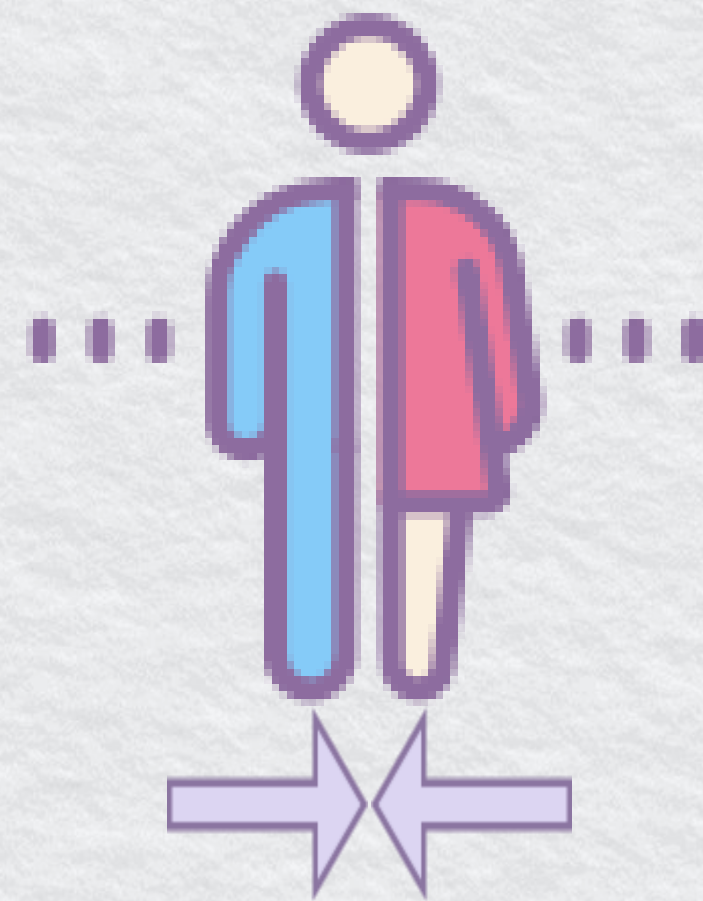
즉 반대편을 지향하는 것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본질

그래야만 서로 공존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음

서로가 서로를 지향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

우주적인 관점에서든, 초미시적인 양자의 영역에서든 대립되는 두 개의 기운으로 인해 존재 자체가 가능

다른 천체 주변을 회전하지 않는 어떤 천체도 없으며, 초미시적인 관점에서든 모든 존재는 쌍을 이루고 있음.



기운의 본질

그렇다면 각각의 오행은 무엇을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나의 오행은 본질적으로 어떤 기운을 지향할까?

음이 양을 갈망하는 것처럼, 양이 음을 쟁취하려는 것처럼

하나의 오행도 본질적으로 다른 오행을 지향하지 않을까?

음양이나 사상四象의 관점에서는 반대편이라는 개념이 명백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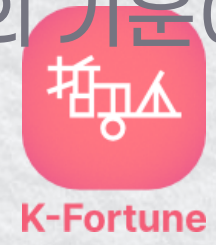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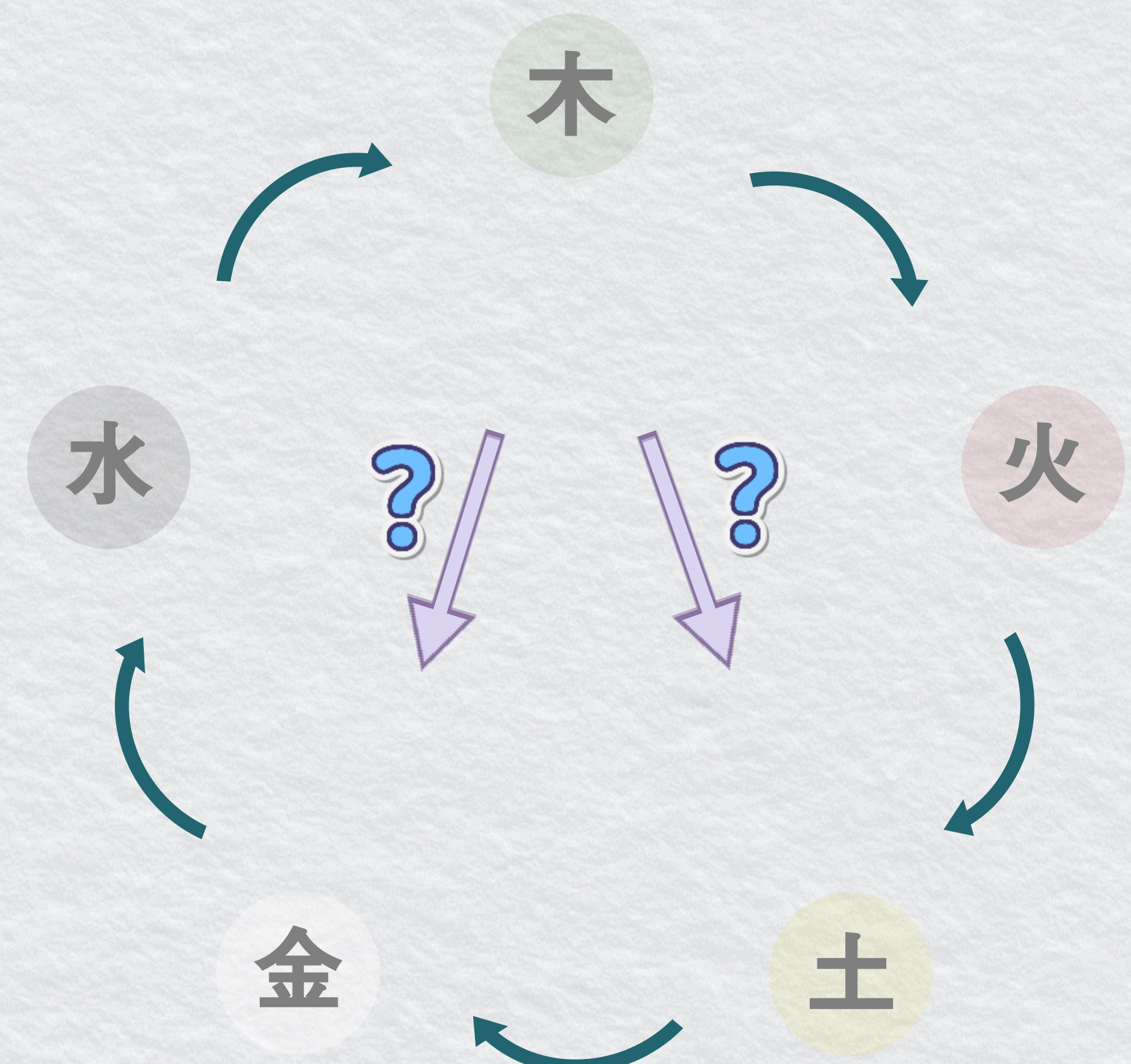
오행의 관점으로 보면, 반대편이 명확하지 않음

즉 목의 기운으로 보았을 때, 반대편이 어떤 기운인지가 확실하지 않음 금? 토?

하지만 우주의 순환과 회전이라는 측면(입장)에서 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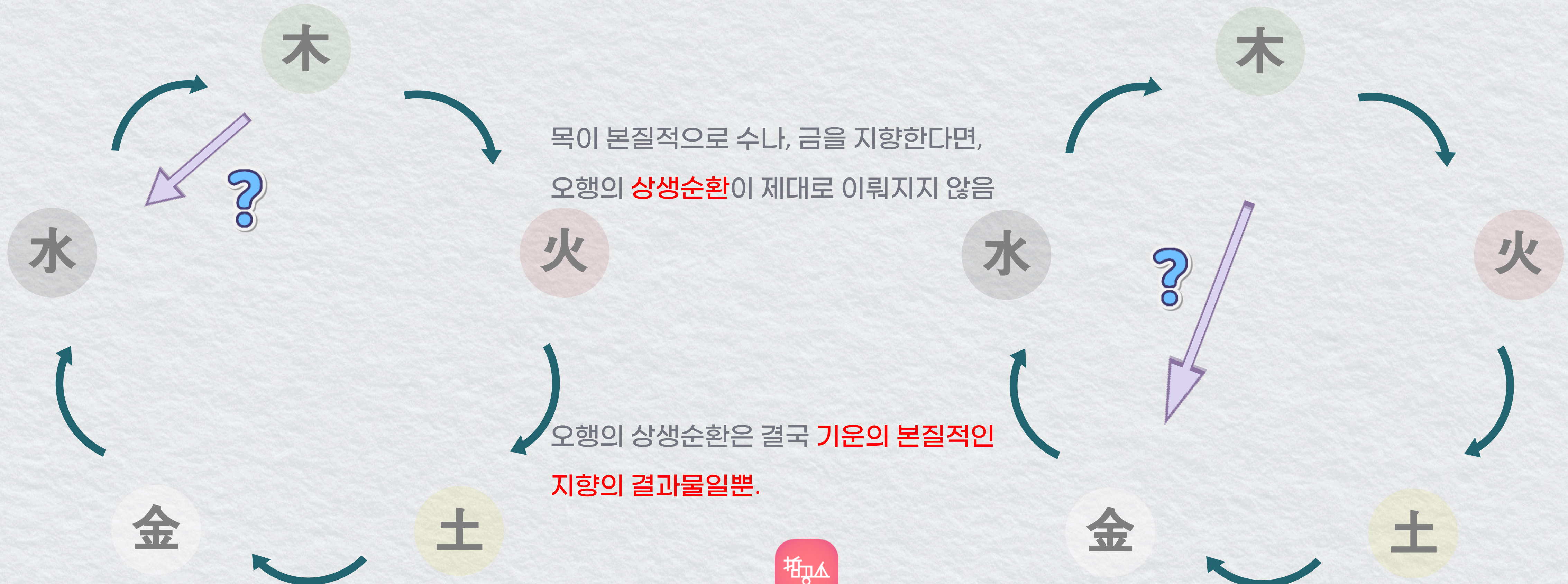
하나의 오행은 분명히 다른 하나의 오행을 지향함. 각각의 오행도 하나의 기운이니까

내가 진정 원하는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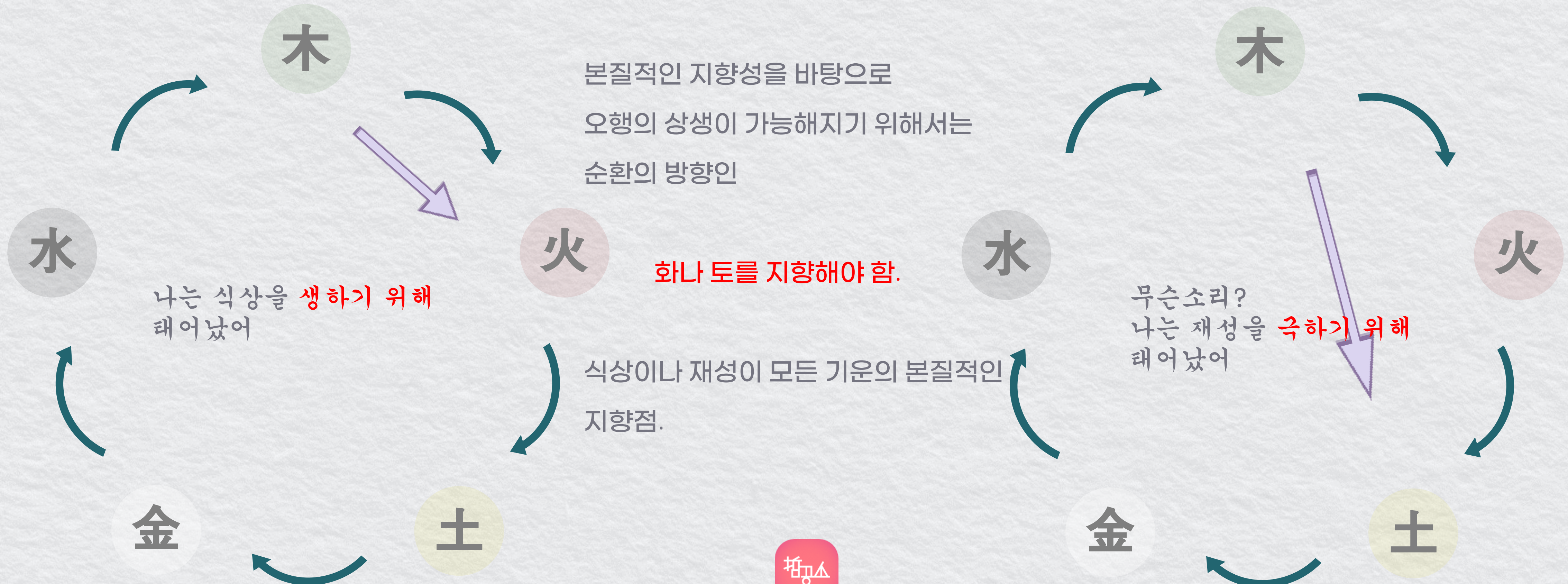
기운의 본질

오행의 순환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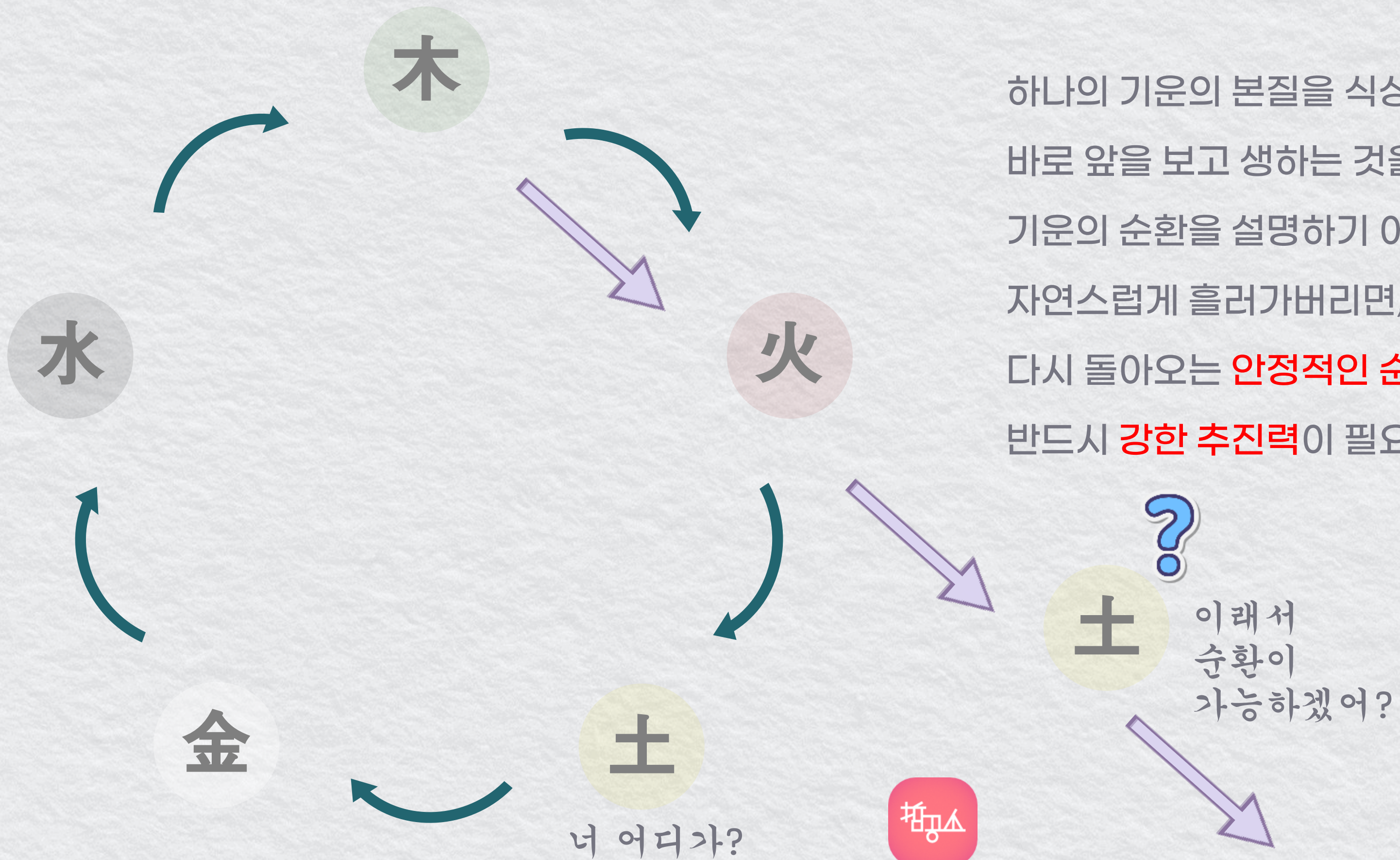
기운의 본질

결국 화 아니면 토, 즉 식상 혹은 재성



기운의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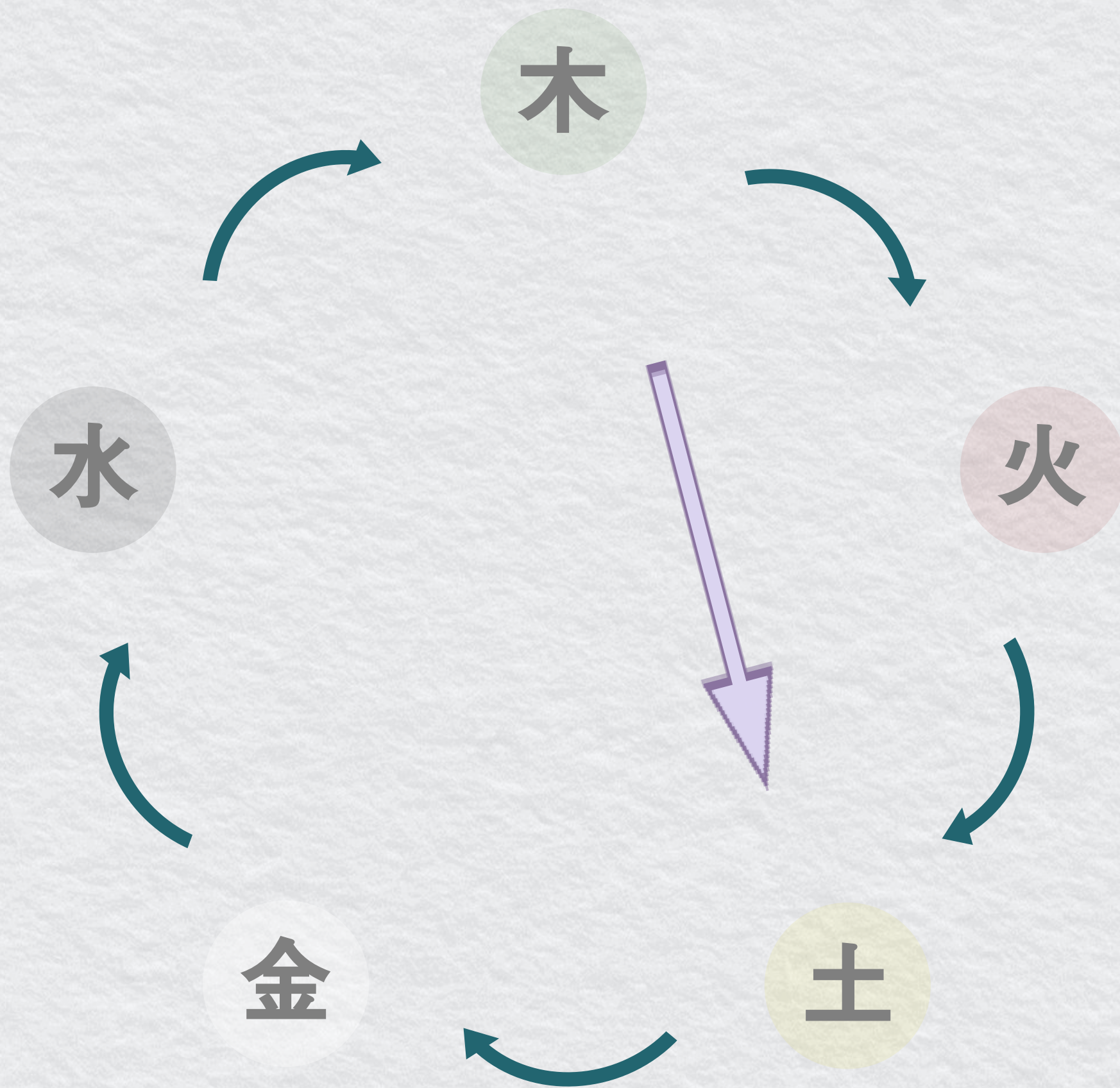
식상은 자연스럽지만,



하나의 기운의 본질을 식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바로 앞을 보고 생하는 것을 본질로 보면, 기운의 순환을 설명하기 어렵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다시 돌아오는 **안정적인 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기운의 본질

재성이 본질이다.



모든 기운의 본질은 반대편을 향하는 것,
그리고 순방향을 향하는 것,

생은 극의 결과물일 뿐,
실제로 모든 작용의 근원은 극
오로지 극을 통해서만 오행은 순환할 수 있고,
균형과 중심을 잡을 수 있음

목이 화로 흐르는 것은
목이 토를 지향하는 것에 따른 결과물인 것

기운의 본질

오행 순환의 본질은 극



우리가 바로 오행상생의 근원이야!

음양이 서로 반대편, 즉 극단을 열망하는 것처럼.

모든 기운은 본질적으로
반대편,
즉 극을 열망하고,

오행 순환 본질은 극

기운의 본질

상생, 순환은 극의 부산물



극의 결과로써,
생의 흐름이 생성되는 것

생 안에는 사실 극이 숨어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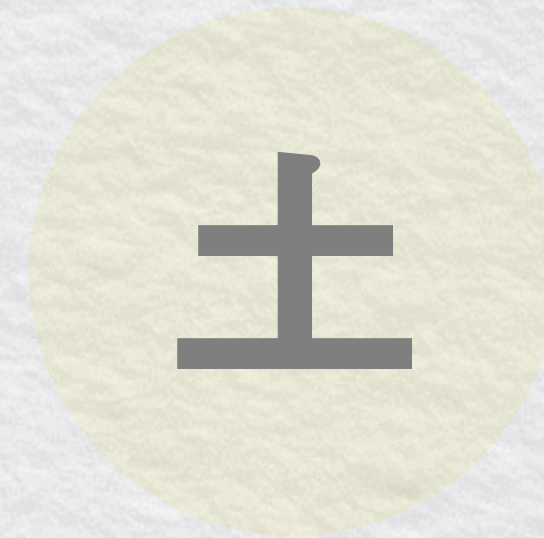
포인트는 식상이 아니라,
사실 **재생!**

천간의 본질

목은 토를 지향한다

목이 토를 지향하고,
토는 수를 지향하고,
수는 화를 지향하고,
화는 금을 지향하고,
금은 목을 지향하는 것이
우주의 근원이자, 오행 작용의 핵심

드디어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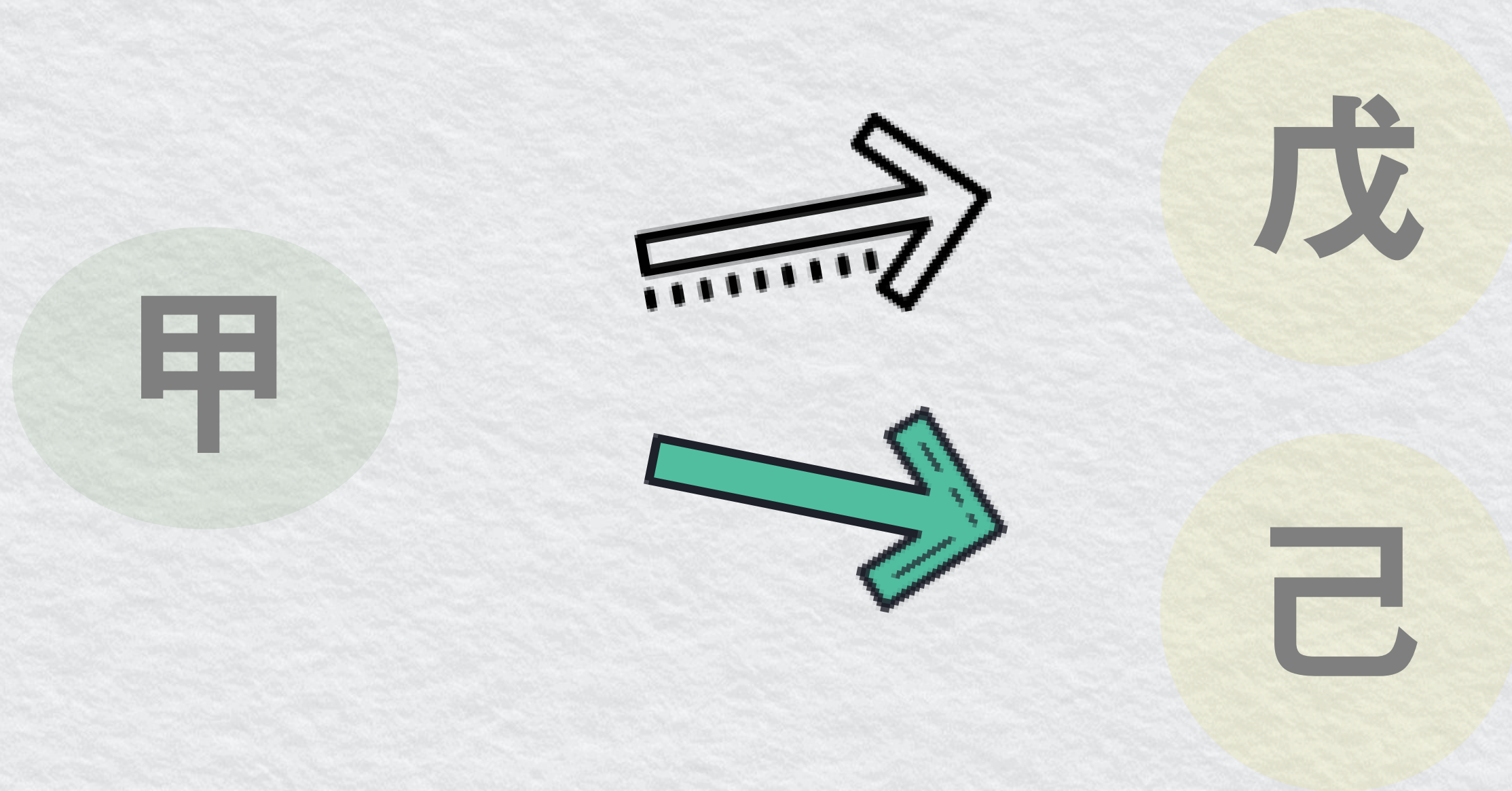
천간의 본질

갑목을 기준으로

오행에서 천간으로 세분화하면,
갑목은 본질적으로 무토와 기토를
지향함

갑목이 태어난 이유는?
무토와 기토를 지향하기 위해

갑목은 본질적으로 무토와 기토에 끌림



천간의 본질

갑목을 기준으로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을 세분화하면,

즉 극을 음양으로 쪼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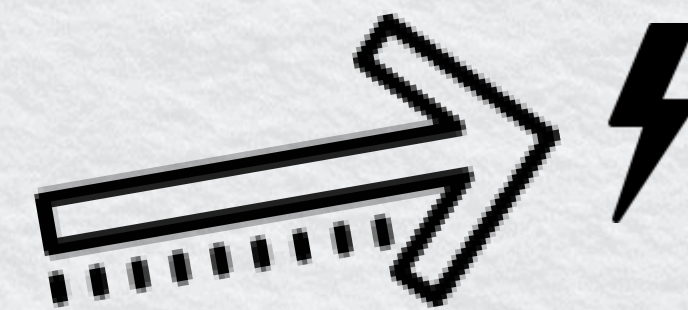
같은 극끼리는 치열하게 극하고

다른 극끼리는 완전하게 어우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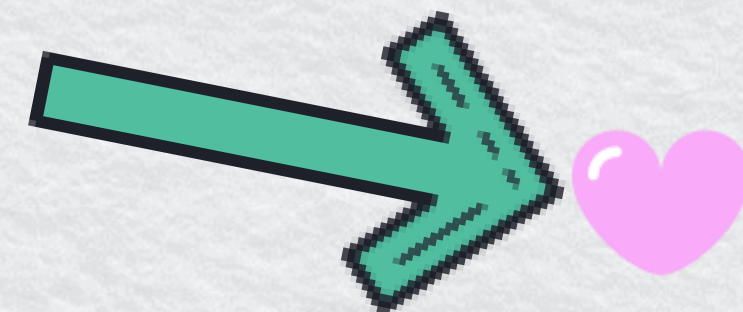
같은 음양끼리의 극을 **진짜 극**으로 부르고, (전쟁)

다른 음양끼리의 극을 **합**이라 부른다. (사랑)

너를 죽이는데 내 사랑의 방식이야.



극



합

너와 하나되는 게 내 사랑의 방식이야

극(剋)

극

같은 음양끼리 만나면,
 갑목이 무토, 갑무극
 을목이 기토, 을기극
 병화가 경금, 병경극
 정화가 신금, 정신극
 무토가 임수, 무임극
 기토가 계수, 기계극
 경금이 갑목, 경갑극
 신금이 을목, 신을극
 임수가 병화, 임병극
 계수가 정화, 계정극
 를 만나면 **진짜 극**이 일어난다.



극(剋)

극의 일반적인 작용

갑목이 무토를 만나면, 반갑게 만나서 신나게 무토를 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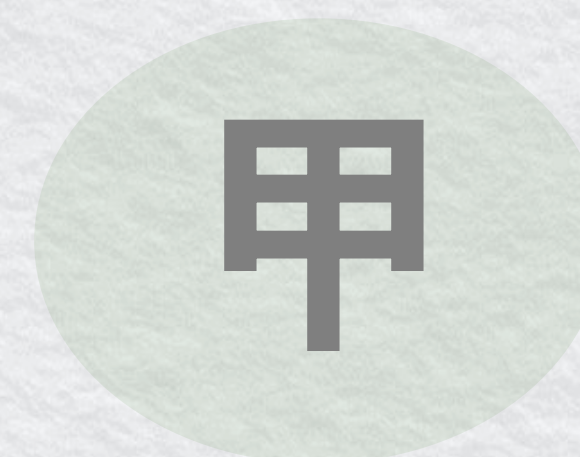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사정없이 무토를 극함.

갑목과 무토의 음양이 같기에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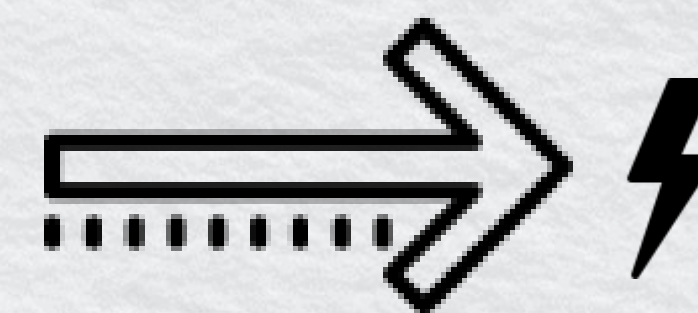
극은 **격렬하고 즉각적**

갑목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없이 때리는 것이고, (완전한 승리)

무토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반항하지 못하고 당하는 것 (완전한 굴복)



너를 죽이는데
내 사랑의 방식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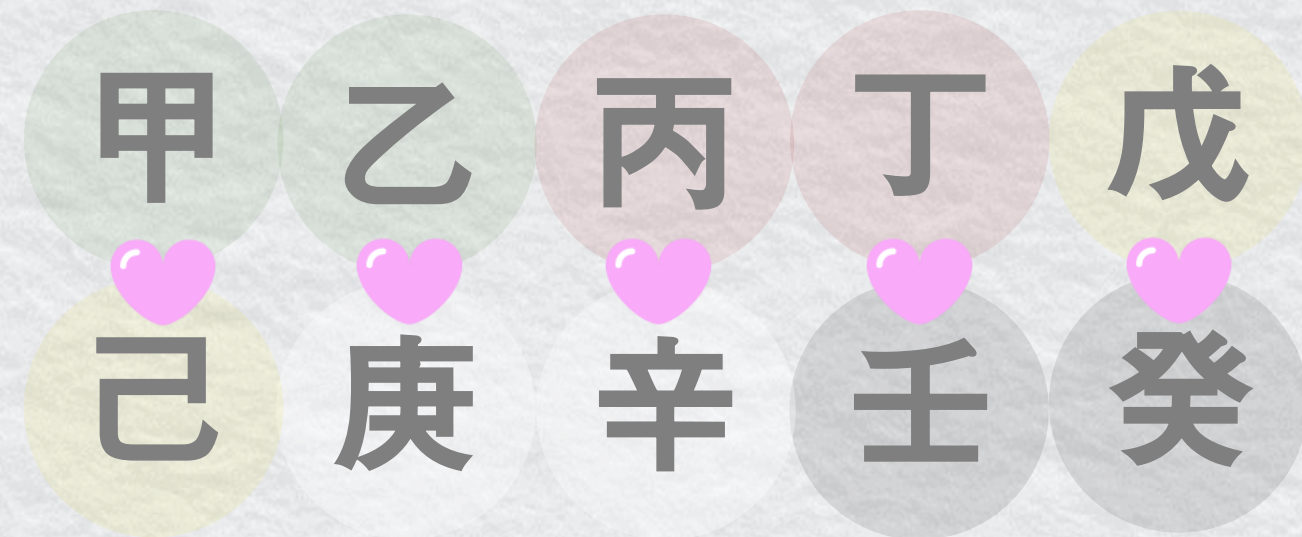


나는 너를 죽이기 위해
태어났지!!

합(合)

합

다른 음양끼리 만나면,
 갑목이 기토,
 을목이 경금,
 병화가 신금,
 정화가 임수,
 무토가 계수,
 를 만나면 **합**이 일어난다.



너와 하나되는 게
 내 사랑의 방식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지



합(合)

너와 하나되는 게
내 사랑의 방식이야

나는 너를 취하기 위해
태어났지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당신과 하나되기 위해
태어났죠^^

합의 일반적인 작용

갑목이 기토를 만나면, 반갑게 만나서 정답게 사랑을 나눔.

갑목은 기토를 만나서 어루만지고 아끼고 껴안음

갑목과 기토의 음양이 다르기에

갑목이 기토를 지향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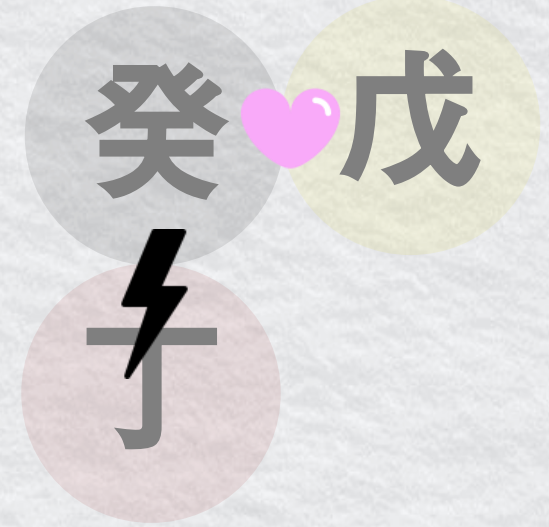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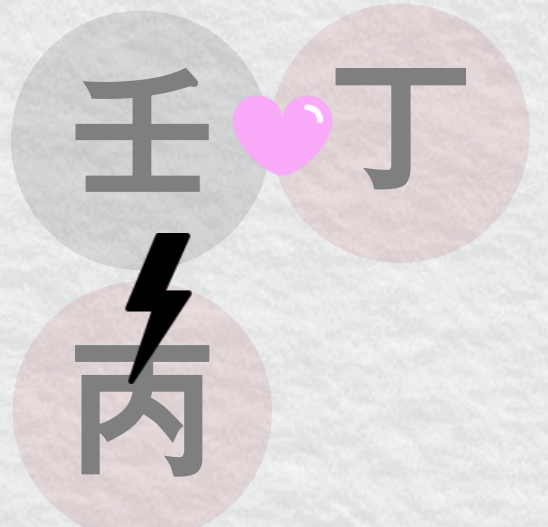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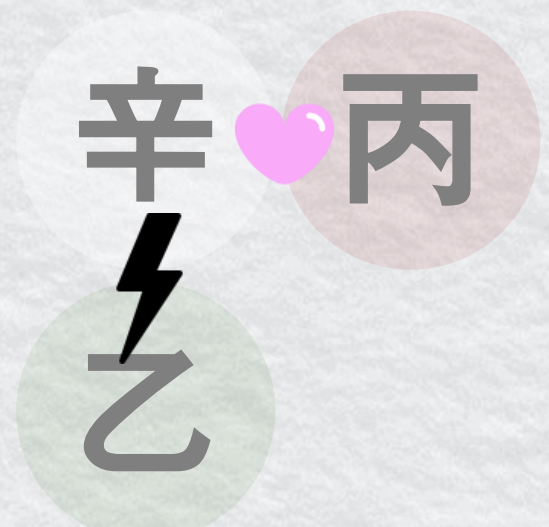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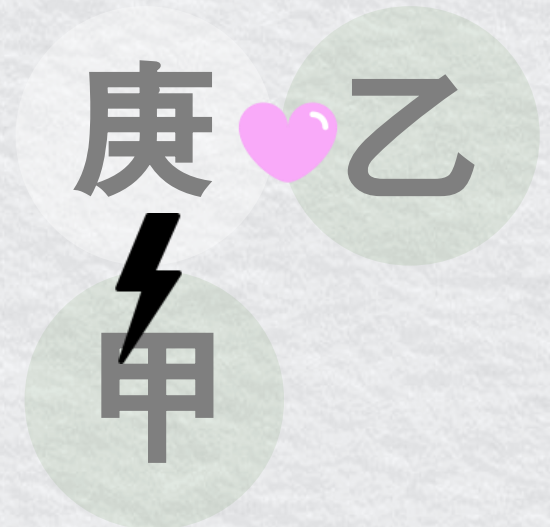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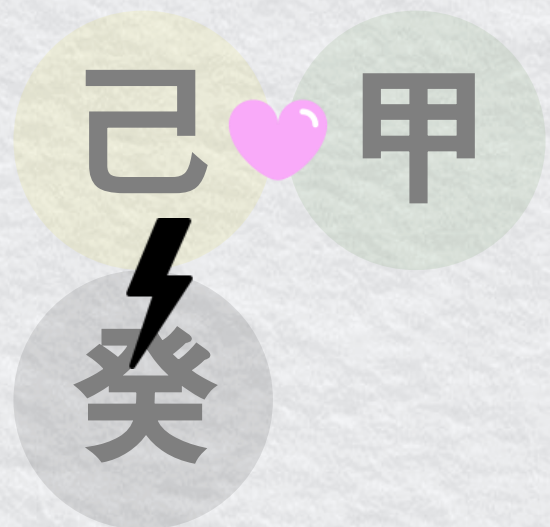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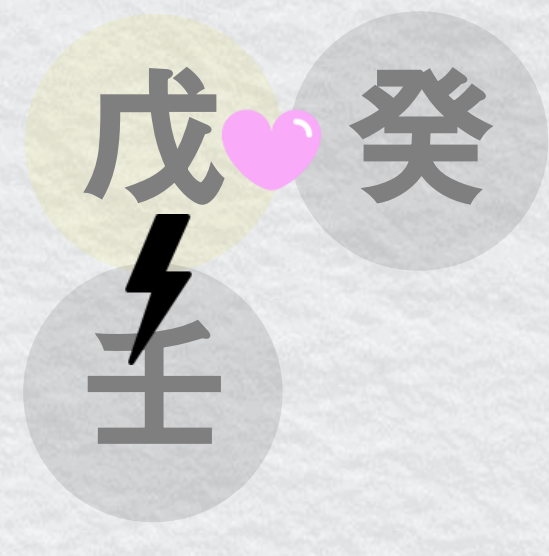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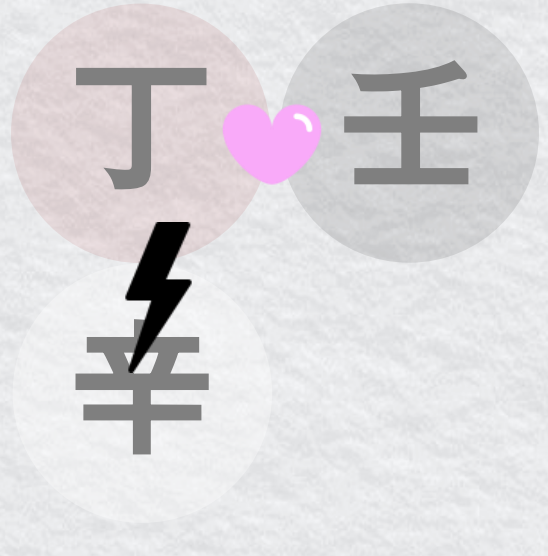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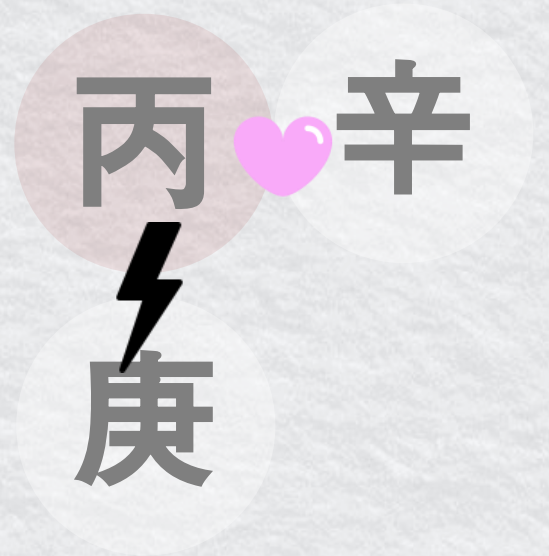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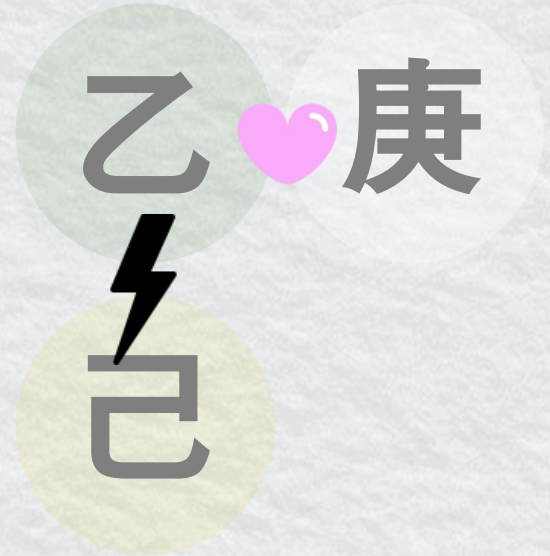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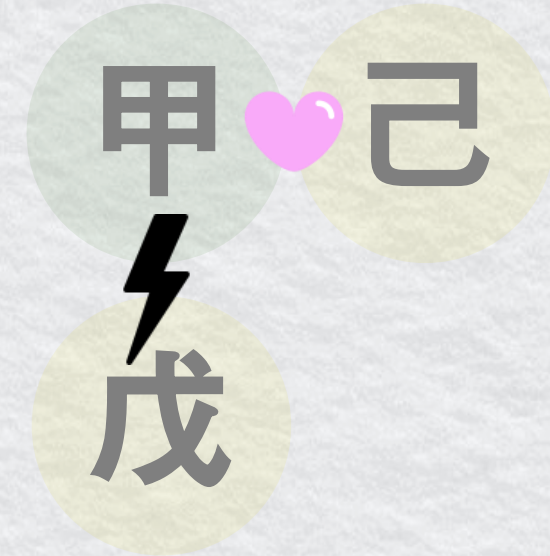
음과 양의 참다운 교감, 기운의 본질적인 협응

갑목의 입장에서서는 기토를 아끼고 보호해서 껴안는 것이고,
기토의 입장에서 보면, 갑목에게 폭 안겨 보호를 받는 것



합과 극

합과 극의 정리



합과 극

합과 극, 그리고 음양, 새끼줄

하나의 기운은 재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 기운의 본질

그 기운이 음양으로 나뉘어 합과 극의 상반된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새끼줄이 꼬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음(노자의 도덕경)

19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에 의하면 빛은 전기와 자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기와 자기는 상호 작용하고 교차하면서 (서로 상호 작용하며 교차하면서) 앞으로 나아감

“전기와 자기의 상호 작용이 곧 빛이다”는 전자기파 이론을 통해서도 만물의 작용은 음양 작용의 융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재성을 향해 나아가며 음양으로 분화되어 합과 극을 이루는 것을 모든 기운의 본질로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음간의 상황

갑목의 경우, 기토와 무토를 지향하는 것이 본질

갑목은 기토를 만났을 때 완전한 일치와 안정을 이루고, 무토를 만나면 파극하면서 변화를 이룸.

무토를 밀고 기토를 당기면서 갑목은 하나의 기운으로 존재하는 것

양간과 음간의 차이

그런데 음간의 본질은?

기토는 갑목과 합을 함

하나의 기운의 본질은 재성이라고 하였는데, 어째서 기토의 경우는 관성인 갑목과 합을 하는가.

기토도 하나의 기운이기에 **기토도 기토의 재성인 임수와 합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재성
그것이 내 본질~
게다가 음양이 다르니,
우리는 완전한 짝이 되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재성?
그것이 내 본질?
게다가 음양이 다르니,
우리는 완전한 짝이 되지?

나는 내 짝이 따로 있다고!!!

양간과 음간의 차이

양간의 상황을 반대편에서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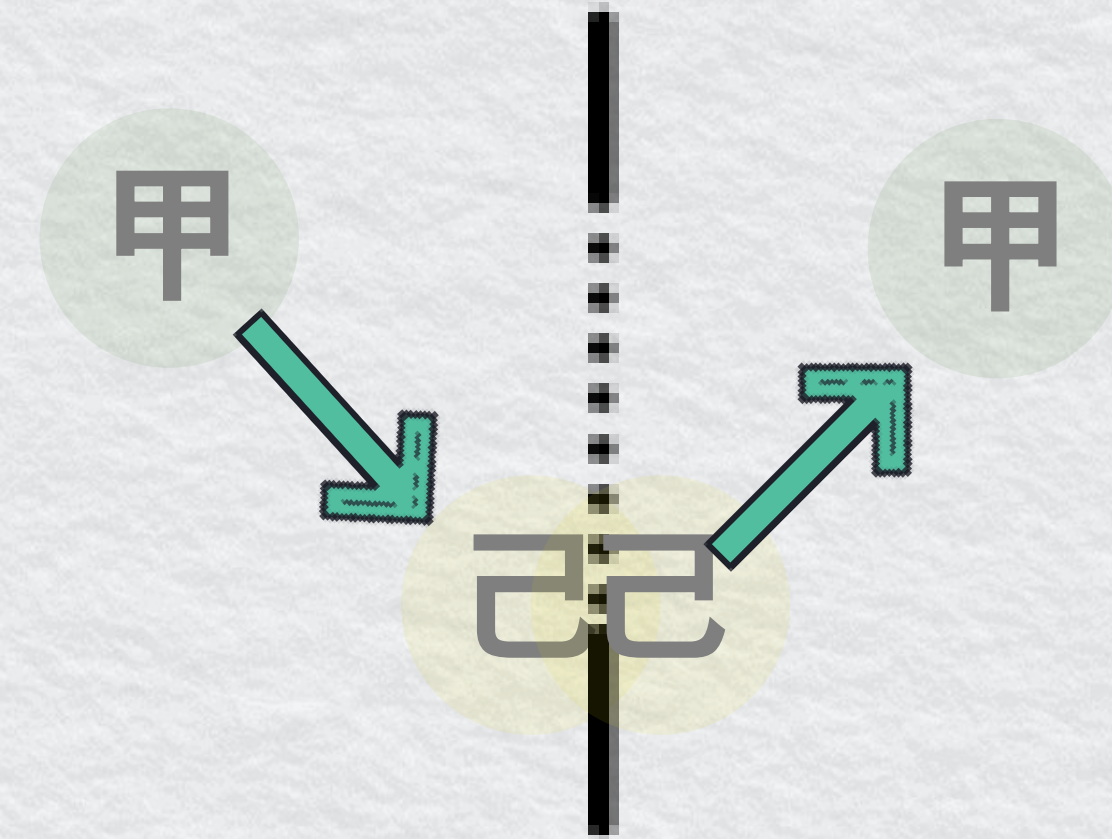
양간인 갑목이 재성인 기토를 지향하려면 반드시 그 반대 방향의 힘도 작용해야 함
즉 기토가 관성인 갑목을 지향해야 힘의 균형이 맞는 것

이는 투명한 책받침의 한쪽에 화살표를 그리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투명한 책받침의 한 면에 화살표를 그리면, 책받침의 반대 면에서는
(그 투명한 책받침의 반대면에서는)다른 방향으로의 화살표가 나타남.

한쪽으로 향하는 힘은 반대쪽에서 보았을 때는 방향이 전혀 다른 힘을 의미함.

따라서 양간이 재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음간은 관성을 지향해야 함

하나의 기운이 음과 양으로 나누어졌으므로,
그 작용도 반드시 반대로 일어나야 하는 것



양간과 음간의 차이

음간의 본질은 관성

양간인 갑목의 본질이 기도를 향한다는 것은,
곧
음간인 기토의 본질이 갑목을 향한다는 것과 같은 말

즉 양간은 재성을 지향하고,
음간은 관성을 지향한다.

양간은 편재를 극하고, 정재와 합을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음간은 편관에게 극을 당하고, 정관과 합을 하는 것이 목적임.

극단적으로 말해 음간은 관성에 포섭당하기 위해 태어남.
정관과는 부드럽게 합을 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편관에게는 극을 당하면서 제어당하는 것

나의 정관
너와 하나되는게
내 행복이야

나는 너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



양간과 음간의 차이

합은 곧 양간이 정재, 음간이 정관을 지향한다는 의미

양간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것은
정재와 합을 하고,편재를 극하는 것

음간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것은
정관과 합을 하고,편관에게 극을 당하는 것

합의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 모든 간지는 반대편을 지향한다.
2. 음양이 다른 것의 조합이 안정적이 평형을 이룬다.
3. 양간은 재를 좋아하고, 음간은 관을 좋아한다.
- 3-1. **양간의 추동성**이 재를 반기고, **음간의 안정성**이 관을 반긴다.

적천수 천간편

- 오양종기부종세 (五陽從氣不情勢)

양은 기를 좇고 세력을 좇지 않는다.

양의 진취적인 추동성 강조.
양이 세력(관성)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재성)을 추구한다는
의미

- 오음종세무정의 (五陰從勢無情義)

음은 의를 좇지 않고, 세력을 추구한다.

음의 안정성과 실속을 강조
음이 추상적인 목표(재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거쳐할 수 있는 세력(관성)을 추구한다는
의미

양간과 음간의 차이

양간과 음간의 차이

오행의 관점에서 모든 오행은 재성을 추구하지만,
천간의 관점으로 보면, 양간은 재성을 추구하고, 음간은 관성을 추구함.
이 이중성을 어떻게 사주해석에 활용할 것인가.

양간과 음간의 차이

양간의 편재와 편관

양간은 음간에 비해 편관이나 편재를 만나면 확실하고 강하게 힘이 드러남.

왜? 양간은 극이 본질이니까 극을 하고 당하는 것의 명확성

예시) 갑진일주, 갑술일주, 병신일주, 경인일주의 강한 편재적 성향

갑신일주, 무인일주, 임진일주, 임술일주의 강한 편관적 성향

난 극이 좋더라.



양간의 경우 편재의 위력 상승

어쩔 좋아, 나도 극이 좋은데



양간의 경우 편관의 부정성 상승

양간과 음간의 차이

음간의 편재와 편관

음간은 양간에 비해 편관이나 편재를 만났을 때 힘이 겹으로 덜 드러남.

부정성을 알면서도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반김.

예시) 을미일주, 을축일주, 정유일주, 신묘일주의 약한 편재적 성향

을유일주, 기묘일주, 계미일주, 계축일주의 겹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편관적 성향

난 극은 별로야.



음간의 경우 편재의 위력 하락
오히려 정재적 성향으로 변모?

내가 굳이 극해야 하나..



음간의 경우 편관의 부정성 하락

양간과 음간의 차이

양간 음간의 정재와 정관

1. 양간은 **음간에 비해** 정재를 만났을 때 더욱 강하게 집착한다.

예시) 무자일주, 임오일주

1-1. 음간은 정재를 만나면 비교적 덜 집착한다.

예시) 기해일주, 계사일주

2. 음간은 **양간에 비해** 정관을 만났을 때 더욱 강하게 집착한다.

예시) 정해일주, 신사일주

2-1 양간은 정관을 만나면 비교적 덜 집착한다.

예시) 병자일주, 경오일주



천간의 본질

실전에서의 활용(극)

1. 극을 통해 사주 관찰하기

음간의 극도 살펴야 하지만 양간이 재성을 추구하니,
양간의 극은 훨씬 극렬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짐.

갑목이 무토를 만나면, 무토는

병화가 경금을 만나면, 경금은

무토가 임수를 만나면, 임수는 **완전히 제어당함.**

경금이 갑목을 만나면, 갑목은

임수가 병화를 만나며, 병화는

<<사주 원국에서 적용. 대운에서 적용, 세운에서 적용>>

1. 일간의 경금이 월간의 갑목을 극할 때 - 편재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남
2. 일간의 임수가 병화 대세운을 만났을 때 - 편재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남
 - 2-1. 일간의 병화가 임수 대세운을 만났을 때 - 강한 편관의 힘을 경험함
3. 연간의 무토가 월간의 임수를 극할 때 - 월간의 임수가 심하게 제어됨
4. 월간의 무토가 갑목 대세운을 만났을 때 - 월간의 무토가 완전히 위축됨

예시) 임인년에 천간에 병화를 가진 사람의 상황 - 병화의 격렬한 위축
갑진년에 천간에 무토를 가진 사람의 상황 - 무토의 격렬한 위축

포인트) 양간을 볼 때는 편관과 편재를 볼 것.

천간의 본질

실전에서의 활용(극)

<<양간의 극으로 사주 바라보기>>

1. 일간의 경금이 월간의 갑목을 극할 때

| 시주 | 일주 | 월주 | 연주 |
|----|----|----|----|
| ● | ★ | ✱ | |
| 갑재 | 본원 | 편재 | 편인 |
| 辛 | 庚 | 甲 | 戊 |
| 巳 | 子 | 子 | 辰 |
| 편관 | 상관 | 상관 | 편인 |

사주의 주인은 편재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남

천간의 본질

실전에서의 활용(극)

<<양간의 극으로 사주 바라보기>>

2. 일간의 임수가 병화 대세운을 만났을 때

| 대운 | 시주 | 일주 | 월주 | 연주 |
|----|----|----|----|----|
| ** | | | | |
| 편재 | 상관 | 본원 | 비견 | 편관 |
| 丙 | 乙 | 壬 | 壬 | 戊 |
| 寅 | 巳 | 子 | 戌 | 寅 |
| 식신 | 편재 | 겁재 | 편관 | 식신 |

병인대운의 시기에 편재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남

2-1. 일간의 병화가 임수 대세운을 만났을 때

| 대운 | 시주 | 일주 | 월주 | 연주 |
|----|----|----|----|----|
| ** | | | | |
| 편관 | 정인 | 본원 | 정인 | 비견 |
| 壬 | 乙 | 丙 | 乙 | 丙 |
| 寅 | 未 | 午 | 未 | 子 |
| 편인 | 상관 | 겁재 | 상관 | 정관 |

임인대운의 시기에 강한 편관의 힘을 경험함.

천간의 본질

실전에서의 활용(극)

<<양간의 극으로 사주 바라보기>>

3. 연간의 무토가 월간의 임수를 극할 때

| 시주 | 일주 | 월주 | 연주 |
|----|----|----|----|
| ●● | | ● | |
| 식신 | 본원 | 정인 | 정재 |
| 丁 | 乙 | 壬 | 戊 |
| 亥 | 丑 | 戌 | 午 |
| 정인 | 편재 | 정재 | 식신 |

월간의 임수가 심하게 제어됨.

정인의 힘을 쓰기가 어려움을 암시.

4. 월간의 무토가 갑목 대세운을 만났을때

| 대운 | 시주 | 일주 | 월주 | 연주 |
|----|----|----|----|----|
| * | ●* | * | | ● |
| 정재 | 편재 | 본원 | 정인 | 겁재 |
| 甲 | 乙 | 辛 | 戊 | 庚 |
| 戌 | 未 | 丑 | 寅 | 午 |
| 정인 | 편인 | 편인 | 정재 | 편관 |

월간의 무토가 완전히 위축됨.

정인의 힘을 쓰기가 어려운 시기임.

천간의 본질

실전에서의 활용(합)

음양이 만나서 합이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하나로 묶임.

갑목이 기토를 만나면,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무토가 계수를 만나면, **융화됨(하나로 묶임)**

경금이 을목을 만나면,

임수가 정화를 만나며,

<<사주 원국에서 적용. 대운에서 적용, 세운에서 적용>>

1. 일간의 경금이 시간의 을목과 합할 때 - 일간이 강하게 정재를 추구함
2. 연간의 무토와 월간의 계수가 합할 때 - 둘의 십신이 서로 융화됨
3. 일간의 무토가 계수 대세운을 만났을 때 - 일간은 강하게 정재를 추구함
4. 월간의 경금이 을목 대세운을 만났을때 - 월간의 경금의 십신이 을목과 융화함

예시) 계묘년에 일간에 무토를 가진 사람의 상황 - 강하게 정재를 추구함
을사년에 일간에 경금을 가진 사람의 상황 - 강하게 정재를 추구함

**포인트) 일간과 정재의 합은 강하게 정재를 추구하는 성향으로 드러남
일간이 아닌 기운과 정재의 합은 둘의 십신이 융화하여 드러남**

천간의 본질

실전에서의 활용

<<합으로 사주 바라보기>>

1. 일간의 경금이 시간의 을목과 합할 때

| 시주 | 일주 | 월주 | 연주 |
|----|----|----|----|
| ● | ● | | |
| 정재 | 본원 | 상관 | 상관 |
| 乙 | 庚 | 癸 | 癸 |
| 酉 | 寅 | 亥 | 未 |
| 겁재 | 편재 | 식신 | 정인 |

사주의 주인은 정재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남

2. 연간의 무토와 월간의 계수가 합할 때

| 시주 | 일주 | 월주 | 연주 |
|----|----|----|----|
| ● | | ● | ● |
| 겁재 | 본원 | 상관 | 편인 |
| 辛 | 庚 | 癸 | 戊 |
| 巳 | 寅 | 亥 | 午 |
| 편관 | 편재 | 식신 | 정관 |

계수와 무토의 강한 결합으로,
상관과 편인의 힘이 융화함.

기술(편인)의 발현(상관).

문서(편인)의 사용능력(상관).

천간의 본질

실전에서의 활용

<<양간의 합으로 사주 바라보기>>

3. 일간의 무토가 계수 대세운을 만났을 때

| 대운 | 시주 | 일주 | 월주 | 연주 |
|----|----|----|----|----|
| ●● | * | | ● | ● |
| 정재 | 편관 | 본원 | 정인 | 식신 |
| 癸 | 甲 | 戊 | 丁 | 庚 |
| 巳 | 寅 | 申 | 亥 | 申 |
| 편인 | 편관 | 식신 | 편재 | 식신 |

계사대운의 시기에 정재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남

4. 월간의 경금이 을목 대세운을 만났을 때

| 대운 | 시주 | 일주 | 월주 | 연주 |
|----|----|----|----|----|
| ● | ● | ●● | | * |
| 식신 | 정관 | 본원 | 정인 | 편재 |
| 乙 | 戊 | 癸 | 庚 | 丁 |
| 卯 | 午 | 卯 | 戌 | 卯 |
| 식신 | 편재 | 식신 | 정관 | 식신 |

을묘대운의 시기에 경금이 을목과 결합하여,

정인과 식신의 힘이 융화함

공부(정인)한 결과의 표현(식신)

자애로운 마음으로(정인) 교육활동에 종사(식신)

천간의 본질

실전에서의 활용(T존의 활용)

만약 T존에

합과

양간 극에 놓여있다면,

더욱더 직업, 심리, 삶의 도구에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음.

| 시주 | 일주 | 월주 | 연주 |
|----|----|----|----|
| | ** | * | * |
| 편인 | 본원 | 편관 | 편관 |
| 甲 | 丙 | 壬 | 壬 |
| 午 | 戌 | 子 | 戌 |
| 겁재 | 식신 | 정관 | 식신 |

다른 요소도 중요하지만

월간의 임수의 입장에서 사주를 관찰해보자.

강한 세력을 형성한 임수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바로 바로 옆에 놓인 병화를 극하는 것이다!!

편관의 성향이 잘 드러나고, 편관을 잘 사용해야 하는 사주.

큰 무대 위에 오를 삶.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아야 하는 삶